

2020년 7월 24일(금)

0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김명혜 활동가 (070-4760-1201) 권나미 활동가 (02-6382-0999)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카라, 국내 개식용 종식 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온라인 전시 열어

-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부터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까지 주요 사건 총망라
- '카라' 개식용 종식의 큰 방향을 제시하며 이후로의 결단을 촉구
- 비대면 전시로 진행되어 누구나 어디서나 관람 가능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가 국내 개식용 종식 운동의 흐름과 의미를 조명하는 온라인 전시관을 열었다.

○ 이번 전시는 1963년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 60여 년간 개식용을 둘러싼 주요한 변곡점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사건과 활동의 맥락을 짚으며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복잡했던 사회적 갈등은 각 시대마다 해결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사회는 이미 변화하고 있고 개식용 종식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임을 드러낸다.

○ 전시는 크게 5개의 시대로 구분했으며, 개식용의 암흑기를 지나 찬반 갈등이 시작된 1963년부터 1991년, 연이은 개식용 합법화 시도에 맞선 1999년부터 2007년, 개식용 산업의 조직화와 대형화를 저지하고 대응했던 2008년부터 2014년, 세계 유일 한국 식용개 농장의 실체와 위험을 세계에 알리고 금지 입법 논의의 포문을 연 2015년부터 2017년, 모란시장 개도살과 구포 개시장의 철폐 등 개식용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기 시작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망한다. 또한 구호로 살피본 개식용 철폐 운동의 역사와 시기별 뉴스 키워드 분석 자료도 제공되어 다양한 각도에서 개식용 문제의 사회적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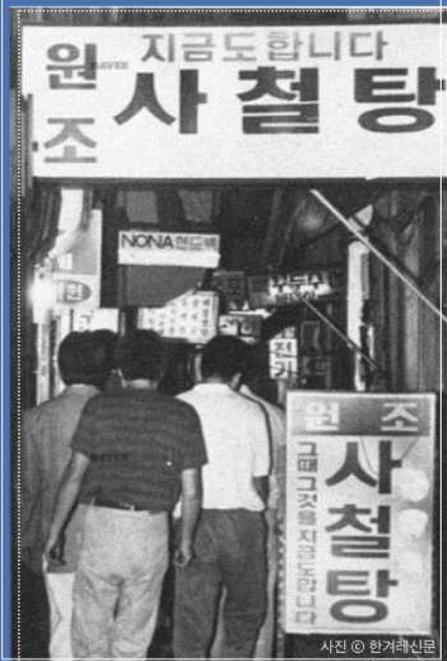
○ 이번 전시는 한국 동물보호 복지 운동의 도화선이자 최대 장애물이기도 한 개식용 종식 운동사를 정리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코로나 19로 사회 곳곳에서 비대면 생활방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민 운동 영역에서 사회 변화에 발맞춰 시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의미를 더한다. 전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전시를 볼 수 있다.

○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오프라인 집회와 시위가 어려워진 지금 개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한 사회적 의사 전개의 틀로서 온라인 전시가 대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늦기 전 세계 유일의 개식용 국가가 되기 전에 하루라도 속히 개식용의 완전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전시는 카라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진행되며, '구호로 살펴본 개식용철폐 운동사' 전시도 아카이브 홈페이지(archive.ekara.org)에서 볼 수 있다. (끝)

참고자료

1.	그림	온라인 전시 홍보 이미지
2.	그림	온라인 전시 캡처 이미지 (1963-1991 개식용의 암흑기를 지나 찬반 갈등의 서막이 오르다)
3.	그림	온라인 전시 캡처 이미지 (2015-2017 세계유일 한국 식용개 농장의 실체와 위험을 세계에 알리고 금지 입법 논의의 포문을 열다)
4.	그림	온라인 전시 캡처 이미지 (2018-2020 개도살과 개식용의 마지막 보루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다)



KARA

[카라 아카이브 온라인 전시관]

개식용 종식! 더 늦기 전에 응답하라!

국내 개식용 종식 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세 가지 전시를 소개합니다.

1963-1991

"개식용의 암흑기를 지나 찬반 갈등의 서막이 오르다"



1975년 정부는 축산물처리공법을 개정하여 개고기를 가축의 범위에 추가시켰다. 일반 정육점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던 시기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동물보호인식이 낮았고 개고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국제사회가 한국의 개식용 문화를 반대하고 개고기 유통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올림픽 기간에 보신탄 판매를 금지하고 단속을 시작했지만 올림픽 끝난 후에 흐지부지되었고,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개식용 문제는 '전통 식문화'라는 이유로 동물학대 범위에서 제외시켰다.(사진출처: 1988년 6월3일 한겨레,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2015-2017

"세계 유일 한국 식용개 농장의 실체와 위험을 세계에 알리고 금지 입법 논의의 포문을 열다"



개식용 종식을 위해 애써온 그간의 노력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카라는 개식용은 무법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임을 명백하게 밝힌 법규안내집을 발간했다. 또한, 국제컨퍼런스로 '세계 유일 한국 식용개 농장'의 실체를 세계에 알렸다. 이를 통해 개식용산업 속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들은 법적 조치 없이 묵인한 정부와 행정기관, 경찰과 검찰 등의 사법기관이 총체적 문제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카라는 개식용산업을 압박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개농장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동물학대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2018-2020

"개도살과 개식용의 마지막 보루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다"



개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개식용의 메카인 모란시장, 구포 개시장, 태평동 도살장은 역사 속에 사라졌다. 또한 2018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미신고된 상태의 불법 개농장은 단계별 행정처분으로 폐쇄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4년간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 파기를 위해 카라는 탄원서 제출, 직무유기 검사 고발, 기자회견, 침묵의 피케팅 활동을 이어왔고, 재판부에 다수의 증빙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유죄 판결로 이끌었다. '전기도살 유죄' 판결로 인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의 본격적인 개농장 적발과 고발로 이어지는 성과까지 얻었다.

동물권행동 카라